

# 판 커진 ETN시장... 치킨·엑스포 등 다양성으로 투심 저격

ETN 시장 규모 10조원 넘어서  
전체 거래 중 개인 비중 36%  
제약·리스크 적어 수요 증가세



다양한 상장지수증권(ETN)이 출시되면서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유투이미지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고객 선점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ETN 상품을 앞다퉀 출시하고 있다.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인 ETF와 달리 ETN은 증권사가 발행한다. 무보증, 무담보 상품이라 일부 대형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으며, 만일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상장폐지되는 신용리스크가 존재한다. 또 ETF는 종목 10개 이상을 편입해야 하지만, ETN은 최소 5개만 편입하면 되는 등 제약이 적다.

### ◆국내 ETN 10조 ↑...꾸준한 성장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국내 ETN 순자산 금액은 10조519억원으로 집계됐다. ETN 순자산 금액의 경우 지난 10월(10조6492억원) 대비 5.6%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7조6268억원 ▲2021년 8조8164억원 ▲2022년 11월 10조519억원 등의 순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839억원으로 전월(3260억원) 대비 17.8% 늘었다. 상장 종목수도 360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순자산 금액이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내 전략(11.4%), 국내 레버리지·인버스(01.7%), 해외 원자재(7.3%) 등이다.

국내 ETN 시장의 성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 참여로 인해 이뤄졌다.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투

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1월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381억 9000만원으로 전체 시장의 3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율도 33.8%에 달하는데, 외국인(0%), 기관(-9.56%)과 달리 홀로 증가세를 보인다.

### ◆'치킨·폐기물·부산엑스포'...테마형 ETN 출시

증권사들도 개인투자자의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테마형 상품을 잇

따라 출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재와 주가지수 선물 상품이 대다수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월 '신한 Fn Guide치킨 ETN'을 신규 상장했다. 이 상품은 치킨과 사업 연관성이 높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종목 중 10종목을 선정해 투자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초 '신한 Fn Guide 폐기물처리 ETN'을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 폐기물 처리량 증가와 순환 경제 등 새롭게 떠오른 투자수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10종목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초 특정 이벤트와 연동한 ETN도 등장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FnGuide 부산엑스포 추가수익 ETN'이다.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면 수익을 최대 1.2%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11개 기업이며,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누적 0.3% 추가 수익이 확보된다.

금융당국도 ETN 활성화를 위해 정책 뒷받침에 나섰다. 지난 10월 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품 허용 ▲채권형 ETN 3배율 레버리지 도입 등을 밝혔다. ETN 적용배율은 변경 전에는 총 4종이었으나 변경 후 채권형 총 12종, 그 외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N 배율이 0.5배로 낮아지는 인버스 0.5배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채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채권형 ETN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 3배율 상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세청(IRA)이 200여 개의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10% 원천징수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ETN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ETN 시장의 순자산총액과 거래량 상위권 종목이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며 "PTP 이슈로 관련 해외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시장으로 환입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ETN 상품이 투자수요 이전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분양 캘린더

### 서울 둔촌동·과주시 등 전국 2만2007가구 분양 전분주택은 4곳 오픈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2만2007가구(일반분양 1만278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경기 과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전분주택은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 울산 중구 북산동 '변영로서한이더프레스티지', 충북 청주시 북대동 '북대자이더스카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 203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총 46만 여㎡의 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로역·중앙보훈병원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충북 청주시 북대동 일원에서 '북대자이더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3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71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현대백화점(충청점)과 롯데 아울렛(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 등이 위치했다. 청주 예술의전당과 청주 아트홀, CGV와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 짐싸는 재미... 지난달에만 4조 팔아치워

최근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반짝 반등에 성공했던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증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등 여러 악재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반등을 틈타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7.80% 상승했던 지난 달 4조1777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1일에도 280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에 탁금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9조6547억원으로 연초(71조 7327억원) 대비 31%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금리 인상, 증시 약세 등에 예·적금으로 역머니무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특히 증권사가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자금 이탈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CMA 잔고는 60조338억원으로, 올 1월 3일 기준 69조1867억원에 비하면 9조원 넘게 감소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함에 따라 증시에 투자하기 위한 CMA 자금이 은행 예·적금 등으로 향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으로 연말 산타 랠리를 내심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지난 2

개월간 코스피는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과일 의장이 밝혔듯이 인상의 속도 조절일 뿐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지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시장은 재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적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 요소를 때문에 이들의 조합이 초래할 수도 있는 경기침체 진입 여부가 2023년 금융시장에서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며 "역사적으로 경기둔화 또는 침체는 채권과 주식에 재진입 기회와 양면의 동전과 같다는 점에서 기회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증권사 3분기 순이익 1.4조... 43% 감소

증시부진·부동산 침체 등 영향  
수수료 수익 2.9조... 21.8% ↓

금리인상에 따른 증시 부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지난 3분기 국내 58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58개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438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161억원) 대비 42.8% 감소했다. 전 분기

(1조823억원) 대비로는 32.9% 증가했다.

증권사의 올해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8%로 전년 동기(10.8%)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분기 수수료 수익은 2조935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8% 줄었다. 수탁수수료는 1조 1878억원으로 주식거래대금 등의 감소로 전 분기 대비 9.3% 감소했다.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는 992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7.2% 줄었

고,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285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 감소했다. 3분기 자기매매손익 역시 1조201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5% 줄었다.

구체적으로 주식 관련 손익은 4829억원으로, 전 분기(4986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채권 관련 손익은 21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했다. 파생 관련 손익은 6971억원으로 전 분기(1조 7515억원) 대비 60.2% 감소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6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 증가했다. 부채총액은 589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

5% 늘었다. 전체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80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내 4개 선물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48억3000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1.3% 증가했다. ROE는 2.6%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 이행과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에 따라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